



인기 캐릭터·월드 뮤지션까지 여름축제 이어진다



**ACC '제3회 애니메이션 모꼬지' 오늘부터 3일간 작품 상영·체험
내일 여름방학 '하하하 놀이터' 내달 30일 '월드뮤직페스티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25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름 시즌을 다채롭게 채울 축제 일정을 소개했다. 어린이 관람객부터 세계 음악애호가들의 발길을 모은다.

●**광주 어린이 모여라... 인기 캐릭터 총 출동**

먼저 26일부터 28일까지 ACC 어린이 문화원 일대에서 펼쳐지는 제3회 애니메이션 모꼬지: 찾아라! 애니메이션 친구들은 국내외 인기 애니메이션을 한 자리에 모은 애니메이션 대축제다. 3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애니메이션 상영, 캐릭터 퍼레이드, 체험 프로그램, 미디어아트 감상 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축제 주요 콘텐츠로 어린이극장에서 애니메이션을 논스톱으로 상영한다. 출동! 슈퍼윙스, 샤샤&마일로, 레인보우버블 썸, 런닝맨: 리벤져스 등 인기 애니메이션 작품이 총출동 한다. 특히 일본(방송국 TBS), 대만(대만타이베이멀티미디어제작협회)과 협력해 해외 작품들도 라인업에 포함됐다. 독립애니메이션 작품 6개도 함께 선보인다.

상영관 옆 다목적 홀에서는 애니메이션 관련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간대별로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색칠놀이 등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가 펼쳐진다.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체험접수처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제한해 진행한다.

이 외에도 호남대 관련 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미디어아트 작품 감상, 샌드아트 공연, 캐릭터 퍼레이드, 고전 애니메이션 감상 등이 준비돼 있다. 아울러 오는 27일 ACC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는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사)한국캐릭터학회와 연계한 '애니메이션 미래비전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학술대회에는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ACC재단 관계자는 "올해 행사는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롯 국내 관련 기관·기업·대학과 일본, 대만 등 해외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참여한다"며 "올해 행사를 시작으로 아시아 권역 축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경·장르 초월... 한 여름밤 음악 축제 제15회를 맞이한 올해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예술극장, 5·18민주광장 등 ACC 일대에서 펼쳐진다. 한국 대중음악사를 대표하는 김창완 밴드부터 페르시안 음악의 거장 '카이한 칼호르 트리오'까지 국경, 장르, 연령을 초월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무대가 펼쳐진다.**

먼저 첫 번째 관전포인트는 이번 월드뮤직페스티벌 기간에 앞서 8월 28일과 29일 마련되는 스페셜 무대다. 주 무대인 ACC를 벗어나 무등산에 위치한 사찰인

원효사에서 '사운드 스케이프 일파만파(一波萬波)'를 주제로 이틀 동안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산으로 둘러싸인 사찰에서 자연과 일상의 소리를 채집하여 플레이하는 사운드 디자이너 '요시 호리카와'와 미디어 아티스트 목진오 작가가 참여해 조명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이틀 동안 오후 7시 30분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두 번째는 오직 ACC에서만 볼 수 있는 장르와 국경을 초월한 '전설들의 무대'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몽골, 대만, 이란, 체코 등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 16개 팀이 참여하며 페스티벌 기간 3일동안 꾸려진 라인업이 눈길을 끈다. 김창완 밴드는 포크, 발라드, 메탈, 펑크, 사이키델릭, 프로그레시브 등 대중음악의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현재진행형 전설이다. 이어 페르시안 즉흥음악의 거장 카이한 칼호르는 2017년 요요마와 함께한 '실크로드 앙상블'로 그래미를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전설이다.

이번 2024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에서 꼭 봐야할 공연으로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의 음악축제'로 꾸러진다. 페스티벌에서는 시민들이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외 아티스트의 악기 워크숍과 페스티벌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전문가 워크숍 등 참여 프로그램들이 준비된다.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신진 아티스트인 '반디밴드'의 무대도 행사 기간 동안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플라마켓과 푸드트럭 등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준비해 관람객들이 더욱 다채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4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일반 티켓 가격은 1일권 2만원, 3일권 5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ACC재단(www.accf.or.kr)과 ACC(www.acc.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름방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하하하 놀이터'가 오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준비돼 있다. **도선인 기자**

9월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출품작 살펴볼까?

**'예술인 프린지 아카데미' 성료 참여 단체 중, 대표 4개작 선정
가변형무대·전통연희 장르 다채**

광주문화재단은 2024년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개최에 앞서 '광주 예술인 프린지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을 성황리 마치고, 올해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4개의 작품을 선정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24년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예술단체와 함께 광주만의 거리 예술 콘텐츠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광주 예술인 프린지 아카데미'를 추진한 바 있다. 지역에 있는 공연예술계 23개 단체가 신청했으며 이 중에서 9개 단체를 선발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여 단체들은 기존 레퍼토리를 재창작하는 등 새로운 거리예술 콘텐츠를 구상하며 과정에 참여했다.

아카데미에는 거리예술 분야 정진세 극작가, 정혜리 연출가, 윤종연 축제감독 등이 멘토로 참여했다. 이들은 약 2개월간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지난 22일 공개 발표회를 거쳐 올해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4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작품은 '호텔 SOL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외 3개 작품으로, 음악극, 연극, 전통연희, 융복합 등 장르는 다양하다.

이동형 음악극인 '호텔 SOL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솔뮤직컴퍼니, 대표 이원종)는 한 호텔에서 도난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을 찾기 위해 탐정이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출연자들은 행진하면서 재즈음악과 코믹한 연기가 어우러진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연극 분야 작품으로 선정된 '걱정인형을 살려주세요' (나래, 대표 문유경)는 어

린지와 어른 모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서사가 특징인 작품이다.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가면서 점점 몸이 커지는 걱정인형이 등장하며 관객들이 자신의 고민을 적고 지우는 과정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참여형 연극이다.

'할멈과 무등산호랑이' (사단법인 전통연희놀이연구소, 대표 정재일)는 전통연희가 오랜 시간 관객들과 호흡해 온 거리 예술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당초 어린이 대상 실내공연으로 제작됐던 작품을 거리의 특색에 맞게 각색하고, 사자춤, 죽방울놀이, 버나놀이 등이 어우러진 신명나는 무대를 꾸민다.

마지막으로 '포트럭 파티' (행복한 문화제작소 수풀림, 대표 임창숙)는 음악과 연극 및 무용이 어우러진 융복합 콘텐츠다. 각자 원하는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즐기는 포트럭 파티(Potluck Party)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노래, 연주, 언어를 음식으로 하는 파티에 관객을 초대하고 관객의 개입에 따라 연주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가변형 공연이다.

올해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이동형 공연을 특징으로 하며 오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동구 금남로 일대 등에서 펼쳐진다. 9월 28일과 29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스트리트댄스 축제도 펼쳐진다. 특히 이번에 제작한 '아스팔트 블루스'는 대형 크레인과 원형무대를 활용한 서커스 공중극으로 눈길을 끈다. 지역의 전문예술인과 시민배우가 함께 어우러져 도로를 활보하며 일시적인 해방감을 선사하는 대형 거리극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신혜원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예술감독은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이방인 같은 프린지가 아닌,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프린지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광주영화 '똥 싸는 소리' 31일 전국 개봉

**기획·제작·배급 광주 스텝 참여
29일 광주독립영화관서 시사회**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기획, 제작, 배급까지 모두 지역의 힘으로 제작된 광주영화 '똥 싸는 소리'가 오는 31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밝혔다.

영화 '똥 싸는 소리'는 휠체어를 타는 하반신마비 장애인 미술의 당당한 사랑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와 (사)실로암사람들이 공동 제작했다. 특히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처음으로 배급을 맡아 지역 영화인의 한계를 돌파하며 제작된 광주영화이다.

영화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인인 된 조재형 감독의 복귀작으로 광주 영화 스태프들이 영화 제작에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영화에 참여한 광주 주요 스태프로는 조재형(감독), 최지원(프로듀서), 이경호(각본), 유명상(조감독, 각색, CG), 김신혜(조감독), 오태승(촬영) 등이 있



영화 '똥 싸는 소리' 스틸컷.

다. 이들은 모두 광주독립영화협회를 중심으로 광주영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극장 개봉을 앞두고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9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개봉 전 시사회도 진행된다. 광주독

립영화관 시사회에서는 영화 상영 후 조재형 감독이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다. 진행은 김수진 전 썬1980 편집장이 맡는다. 예매는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립교향악단-송안훈 협연 '환상의 하모니'

**오티움 콘서트Ⅲ 'ROMANTIC'
'미래 거장' 송안훈 지휘에 환호**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오티움 콘서트Ⅲ 'ROMANTIC'이 성황리에 열렸다.

25일 광주시립교향악단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 독일 음악협회로부터 '미래의 거장(Maestro von Morgen)'으로 선정된 독일 오스나부르크 극장 상임 지휘자 송안훈의 지휘로 오티움 콘서트Ⅲ 'ROMANTIC' 공연을 펼

쳤다.

이번 오티움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드보르작·상생스·그리그·브람스 등 낭만주의 시대의 감성과 아름다움을 선사했는데 프랑스 불로뉴비앙쿠르음악원과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을 수석 졸업한 첼리스트 이원해의 협연 연주도 함께했다.

이 지역 대학 출신으로는 드물게 유럽 무대에서 주목을 받는 지휘자로 성장해 고향을 찾은 지휘자 송안훈은 친숙한 해설과 함께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송안훈은 현재 독일 오스타브뤼크 시립

극장 카펠마이스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로, 한국인 최초로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마이스터 클래스를 졸업하고, 독일 음악협회로부터 '미래의 거장'으로 선정된 인물이다.

지역 음악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이번 공연에서 관객들의 바람처럼 매우 절제되고 정돈된 연주력을 보여줬으며 끊임 없이 광주의 자랑으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